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4, pp.565-575, November 30,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65

JCCT 2021-11-69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구조모형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and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조기여*, 한상미**

Jo Ki Yeu*, Han Sang-Mi**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소재의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AMOS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기준을 충족하였다(χ^2/df=2.89, SRMR=.04, RMSEA=.07, CFI=.96, TLI=.95). 연구결과,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 중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취업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stablish a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and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5 college students aged 18 years or older in G-do,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AMOS 24.0 program. The fit index of th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met the acceptance criteria (χ^2/df=2.89, SRMR=.04, RMSEA=.07, CFI=.96, TLI=.95).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directly affect job stress.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directly affect department satisfaction. Thir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job stress through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two variables influencing job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greater relative influence on job preparing str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increas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hich has been found to affect job stress in order to reduce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Job preparing ststress

*정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28일, 수정완료일: 2021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6일

Received: October 28, 2021 / Revised: November 1, 2021
Accepted: November 6, 2021
*Corresponding Author: y2k2509@nate.com
Dept. of Nursing, Gyeongnam Geochang University, Korea

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경제적인 독립과 직업선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와 선택의 순간을 거치며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이 시기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삶의 주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2].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생애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3].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은 2017년 10.3%, 2018년 10.1%, 2019년 10.6%, 2020년 10.1%, 2021년 9.4%로 높은 실정이다[4]. 청년실업률은 만 15세 ~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대학 졸업생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취업과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 후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며, 본인의 취업에 관한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6]. 이는 대학의 중도탈락률 증가와 졸업 후 직업선택과 전공 관련 직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7],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신입생 때부터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8].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의 정서적 감정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하였다[9]. 취업스트레스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학과와 전공을 선택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면 더욱 높게 나타나게 된다 [11]. 학과 및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 전공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어 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12]. 또한 학과 및 전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상승되면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게 된다[11, 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신념이나 유능감을 의미한다[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와 관련된 장애물을 낮게 지각하고, 진로 탐색이나 진로 결정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게 된다[15].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회피하려는 경향과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알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학과만족도는 개인이 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해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학과가 미래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기대와일치한다면 학과만족도는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19].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취업문제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취업스트레스가 심리적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취업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20]. 또한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확인되었으며,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진로관련 정보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감과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전공과 학과에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였다[22].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와의 구조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3, 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은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대처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원인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림 1. 연구모델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G지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380명을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기준으로 적당한 표본크기는 150~200명이다[25]. 이에 탈락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35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한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동의를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전산처리 후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3문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6문항, 학과만족도 21문항, 취업스트레스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측정도구는 원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어진 진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 혹은 자신감을 의미한다[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구는 Taylor와 Betz[14]가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단축형을 이기학과 이학주[2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도구를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자기평가 7문항, 직업정보 5문항, 미래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목표설정 4문항으로 총 26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이기학과 이학주{26]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자기평

가 .76, 직업정보 .68,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 목표설정 .75 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83, 직업정보 .71, 미래계획 .74, 문제해결 .69, 목표설정 .70으로 나타났다.

2) 학과만족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김계현, 하혜숙[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관계만족 5문항,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6문항, 학교만족 3문항으로 총 21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김계현과 하혜숙[1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전공학문관심과 만족 .89, 학과인식만족 .89, 학교인식만족 .87, 교수-학생 관계만족 .76, 전공교과만족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 문항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관계만족 .74, 일반만족 .86, 인식만족 .73, 학교만족 .71로 나타났다.

3)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27], 황성원[28], 강유리[29]가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성격스트레스 6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으로 총 14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강유리[2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성격스트레스 .84, 가족환경스트레스 .87, 학업스트레스 .79, 학교환경스트레스 .78, 취업불안스트레스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성격스트레스 .90, 학업스트레스 .85, 학교환경스트레스 .8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4.0 for Windows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고자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구하였으며, 연구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의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델을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통계적 검정모델로 설정하였다.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선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기평가,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목표설정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학과만족도의 경우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를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χ^2/df, RMSEA, SRMR, CFI, TLI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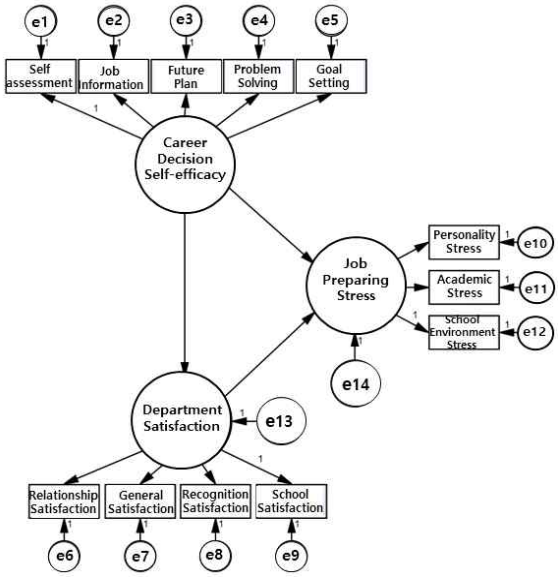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적 모델
Figure 2. Statistical model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의 특징을 보면 전문대학 174명(49.0%), 4년제 대학교 181명(51.0%)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1학년 93명(26.2%), 2학년 81명(22.8%)이였으며, 4년제 대학교는 1학년 79명(22.3%), 2학년 102명(28.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SA	1											
2. JI	.760*	1										
3. FP	.775*	.707*	1									
4. PS	.794*	.701*	.675*	1								
5. GS	.763*	.758*	.744*	.690*	1							
6. RS	.426*	.402*	.371*	.373*	.435*	1						
7. GA	.486*	.324*	.434*	.410*	.429*	.537*	1					
8. RS	.476*	.373*	.454*	.414*	.446*	.519*	.715*	1				
9. SA	.430*	.356*	.406*	.420*	.410*	.560*	.626*	.604*	1			
10. PS	-.191*	-.118*	-.251*	-.167*	-.215*	-.124*	-.193*	-.137*	-.173*	1		
11. AS	-.310*	-.253*	-.298*	-.274*	-.290*	-.216*	-.331*	-.196*	-.173*	.557*	1	
12. SES	-.286*	-.229*	-.306*	-.247*	-.296*	-.345*	-.272*	-.247*	-.329*	.654*	.618*	1

Note. *p<.05

SA = Self Assessment
JI = Job Information
FP = Future Plan
PS = Problem Solving
GS = Goal Setting
RS = Relationship Satisfaction
GS =General Satisfaction
RS = Recognition Satisfaction
SA =School Satisfaction
PS = Personality Stress
AS = Academic Stress
SES = School Environment Stress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3.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1)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회귀모델의 모델 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 가능성 확인절차[30, 3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추정결과는 표 2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2. 모형 적합도 비교
Table 2. Measured of model fit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07)	
							LO90	HI90
Measured model	27	51	147.55	.95	.04	.96	.06	.08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r=.-37, p<.05)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둘째,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r=.-38, p<.05) 역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 간의 상관계수(r=.62, p<.05)는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0.5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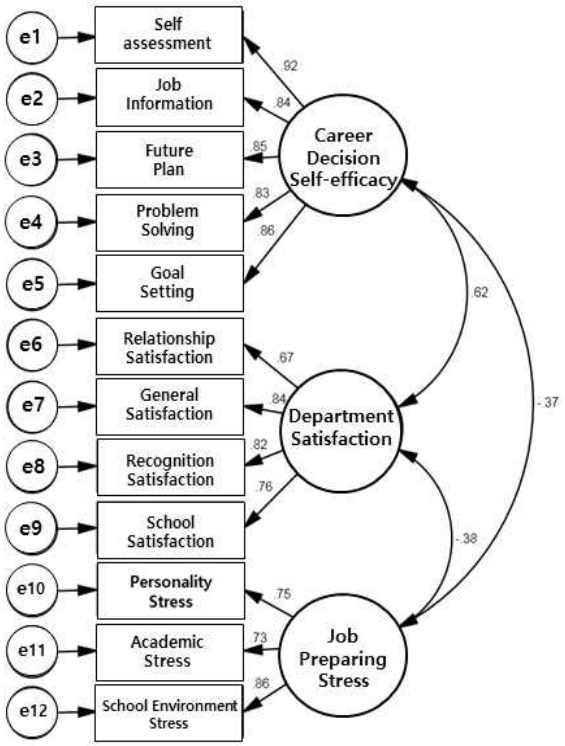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델
Figure 3. Measured model

정도를 검토한 결과, -.37~.62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0이상이면 잠재변수 간에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인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80이상인 것이 없으므로 변별적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4.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및 모수치 추정

1)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지수
Table 3. Research structural model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07)	
							LO90	HI90
structural model	27	51	147.55	.95	.04	.96	.06	.08

2)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통계적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림 4과 같이 구조회귀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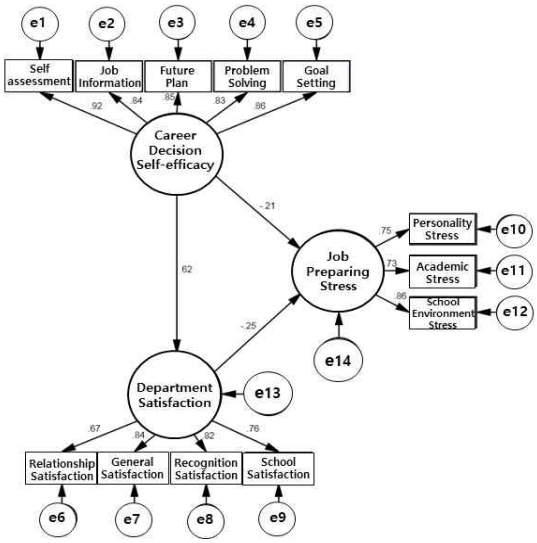

그림 4. 구조회귀모델
Figure 4.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표 4. 구조회귀모델의 직접효과 및 각 요인별 변량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standardization factor
CDS→ JPS	-.30	.11	-2.76*	.006	-.21
DS → JPS	-.33	.10	-3.17*	.002	-.25
CDS → DS	.68	.07	10.24*	.000	.62

Note. *p<.05
C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PS : Job Preparing stress
DS : Department Satisfaction

5. 직·간접 효과 분해효과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총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직·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21, p<.05), 학과만족도(β=-.25, p<.05)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두 변인 모두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 중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62, p<.05)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분해효과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Exogene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CDS→ JPS	-.21*	
DS → JPS	-.25*	
CDS → DS→ JPS	.62*	
CDS → DS→ JPS		-,22*

Note. *p<.05
C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PS : Job Preparing stress
DS : Department Satisfaction

Ⅳ.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서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나타났다[11, 32, 3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4-36].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면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입학할 때부터 취업할 수 있는 전공분야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깊이 있는 공부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신이 결정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선택한 목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취업스트레스도 낮아질 것이다.

둘째,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갖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학과만족도는 대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과 진로준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7-39].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 등 각종 심리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 학과나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개인의 손실 등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39].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성적 저조, 대학생활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와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40].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학과를 선택할 때 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한 후에는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공기반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키고 취업에 대한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진다면 학과만족도가 향상되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41-43].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명확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심리·내적인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45], 학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후회 없이 결정하기 위하여 전공 및 학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따른 취업 준비 및 방법에 필요한 내용 등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46]. 학교에서는 취업지도를 할 때 학생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며,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 및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시 직업인으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되고 학과생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면서 학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전공만족도는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과 맥락을 같이 한다[47].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 및 학과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42, 48],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38, 49]와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본 연구[32, 5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11, 47, 50]등이 있어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전공만족도는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전공 및 학과만족도가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으며,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와 미래계획, 문제해결, 목표설정을 위한 학교 및 학과차원의 정규적인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과에서는 교수-학생 간 주기적인 간담회와 상담을 통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학생활에서의 불만족이나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운영되면서 학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년별 단계적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환경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G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취업스트레스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최종적으로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 직·간접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고,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비교과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C. Y. Jo, and K. M. Kim,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Learn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iency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309-316, February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1.309

[2] A. J. Hong, E. H. Hwang, Y. S. Jo, Y. J. Kim, and M. O. Choi.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Reflective Lear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6, No. 4, pp. 1-20, August 2017. DOI : 10.37210/JVER.2017.36.4.1

[3] E. A. Kim, and S. M. Jin, "Study of Experiences during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3, pp. 67-90, June 2015.

[4] Statistics Korea, "Internet Usage Survey of Korea", Retrieved August, 01, 2021, from https://kosis.kr/index/index.do

[5] S. A. Jang, "Job applicants' Job-seeking Stress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Ewha Womes University, Seoul, 2015.

[6] J. H. Lee,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9.

[7] M. R. Lee, and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861-8869, December 2015. DOI : 10.5762/KAIS.2015.16.12.8861

[8] C. Y. Je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 20, No.1, pp. 1-14, March 2013.

[9] E. H. Park, and E. T. Le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4, pp. 5-30, 2013.

[10]M. B. Cheon, and J. G. Lee, "A Study on the Factors of Job Seeking Stress for Graduand in Korean :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Corporate Management Research*, Vol. 20, NO. 6, pp. 191-214, December 2013.

[11]Y. H. Jung, and J. H. Yang.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of the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3, pp. 229-248, August 2013.

[12]C. Y. Jeong. "Status and Tasks of University Student Employment Support," *2011 Spring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founding of the Korea Employment and Career Association*, pp. 109-129, 2011.

[13]J. Baek, S. H. Ahn, and Y. J. Oh.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 *Employment Career Research*, Vol. 11, No. 1, pp. 159-181, March 2021.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1.007

[14]Taylor, K. M, and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No. 1, pp, 63-81. 1983.

[15]S. Y. Cho, and M. R. Moon,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Counseling Program for Nontraditiona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8, No. 4, pp. 731-748, November 2006.

[16]Fetherston, M., Cherney, M. R., and Bunton, T. E, "Uncertainty, technology use, and career preparation self-efficac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82, No. 3, pp. 276-295, 2018.

[17]M. O. Kim, and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r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1, pp. 69-90, November 2012.

[18]Sandler, M. 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perceived stress, and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persistence: A structural model of finances, attitudes,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41, No 5, pp. 537-580, 2000.

[19]K. H. Kim, and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December 2000.

[20]K. C. Han, and H. S.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arch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1, No. 3, pp. 967-995, August 2019. DOI : 10.23844/kjcp.2019.08.31.3.967

[21]J. H. Lee,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Vol. 5, No. 1, pp. 45-60, 2012.

[22]Komarraju, M., Swanson, J., and Nadler, D, "Increased career self-efficacy predicts college students' motivation, and course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22, No. 3, pp. 420-432, 2014.

[23]Y. D. Gwan, C. H. Kim, and W .J. Kim, "Structural Relations of Security Science Major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43, pp. 121-145, June 2015.

[24]U.J. Mi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Cours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1, pp. 181-197, March 2015.

[25]B. R. Bae, AMOS 2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heongnam Book Publishing, 2014.

[26]K. H. Lee, and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2, No. 1, pp. 127-136, 2000.

[27]Shepherd, M., cooper, B., Brown, A. C.,and Kalton, G. W,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28]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1998.

[29]Y. R. Kang, "The in 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6.

[30]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p. 209, 2005.

[31]S. B. Moo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jisa Publishing, pp. 192-438, 2009.

[32]M. O. Kim, and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r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 Vol. 19, No. 11, pp. 69-90, November 2012.

[33]S. W. Kim, and J. K. Kim, "The Relationship Among job applicants'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 Compassion Contact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 Disorders*, Vol. 34, No. 4, pp. 268-288, December 2018. DOI : 10.33770/JEBD.34.4.11

[34]S. J. Lee, and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3, pp. 589-607, September 2008.

[35]S. K. Kim, and D. H. Ahn,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n Career Barriers, Job-Seeking Stress and Career-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26. No. 3, pp. 25-48, September 2020.

[36]H. J. Jang, and J. H. L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0. 9, pp. 62-70, September 2020.

[37]H. J. Park, E. J. Yoo and H. M. Le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9, pp. 181-188, September 2021.

[38]E. J. Han, and B. M. Hw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ourism-related and Health-related Major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 34, No. 5, pp. 203-222, August 2019.

[39]J. H. Lee, and S. T. Lim,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Major and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133-146, October 2011.

[40]M. J. Park, and H. N. Yoo, "Major 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Comparing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The Korean Journal of Society School Health*, Vol. 31, No. 1, pp. 29-38, April 2018.

[41]Y. J. Kw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spir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3, pp. 1107-1126, December 2019.

[42]W. K. Kim, and E. J.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hysical Education*, Vol. 17, No. 2, pp. 65-77, September 2012.

[43]Y. E. Yoo, and T. I. Kim,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o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2, No. 2, pp. 73-96, April 2018. DOI : 10.32349/ECERR.2018.4.22.2.73

[44]G. J. Yoon and J. J. Cha,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a Sense of Calling,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an Academic Departmen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6. No. 4, pp. 567-587, December 2015.

[45]Y. A. Jo, and J. E. Jeong,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131-152, September 2017.

[46]S. S. Seon,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with an Academic Depar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5, pp. 751-774, Augurst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5.751

[47]Y. H. Kim, and B. C. Kim, "A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echnical junior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college liv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2. No. 3. pp. 21-42, December 2003.

[48] S. C. Lee, and A. K. Jeong, "A study on academic stres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electrical major students,"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 Vol. 11, pp. 121-126. 2011.

[48]H. M. Lee, H. J. Park, and E. J. Yoo,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9, pp. 181-188, 2021. DOI : ttps://doi.org/10.9708/jksci.2021.26.09.181

[50]S. Y. Seo, K. Kim, Y. N. Kim, and P. S. Kim, "Study on the Eeffect Elf-Effectiveness of a Course Decision of Examination Stress among the Collage Students of to Police Major,"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Vol. 1, No. 1, August 2012.

[51]M.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GRI Review*, Vol. 19. No. 3, pp. 159-182, December 2017.